

梧峯申先生神道碑銘 并序

先生諱之悌，字順夫，梧峯號也。申氏系出鵝洲，高麗版圖判書諱允濡其始祖也。生諱祐全羅道按廉使，有孝行旌閭，曾祖諱翰，贈掌隸院判決事，祖諱應奎，贈工曹參判，考諱夢得贈左承旨，妣贈淑夫人月城朴氏敏樹女，嘉靖壬戌七月辛丑生先生。

天性至孝，八歲丁母夫人憂，執喪終制，無異成人，小妹始生在襁褓中，啼聲甚哀，先生亦稚齡，常抱置其側，勤求乳媪，晝夜護養，不少懈，見者稱之。自幼刻意勤學，大人承旨公亦日夜勤勉，期於成立。

稍長聞安東惟一齋先生金公彥璣有學行，教誨生徒，負笈請業，時年未成童也。學徒遞炳書室，先生與同伴二人拾薪，一人誤推樵者，墜崖下斃，推者當法就捕入官，三人爭死，官義而并舍之，金公常奇之曰，此兒言貌謹重，篤學又如此，他日必成大器。

十七歲，讀書山房，有村女美貌者來其居處，夜分不去，先生使女取楚以來，警責而撻之以送，其女遂感化以實告其夫，而其夫以酒饌來謝，其執心制行，已自如此。後又往拜請業于鶴峰金先生。

己丑擢文科，拜司贍寺直長，轉典籍監察，出為禮安縣監。鶴峰先生惜其去，先生以其便養赴任。

壬辰，八路劄於兵，先生時以安東兼任，糾合兩邑兵，進駐龍城，以遏彼衆，彼衆逃散，聞者壯之。到縣初，有賊囚死法當，先生哀其群憫，教諭而赦之，自此縣遂無警。及遇亂，七十餘人冒死來救以免禍，蓋感化而報恩也。巡察使以先生獨能不失官守聞，命兼禮曹正郎，亦異數也。

癸巳五月，鶴峰先生訃至，為位而哭之。十二月，自晉州返葬于安東佳樹川，躬往會葬，為文致奠，其文略曰，不肖無狀，往來於門下者，亦既有年云云。時歲饑設賑，境外之民間先生厚德，仝集無數，先生曰，此亦國民。遂無區別而濟活甚衆。先生常以年少未及溪門為深恨，自莅本縣，日往陶山，與及門諸長老講論旨訣，商確政務，常與近始齋先生金公有同年契分，而約死王事，至是金公為義兵將，卒于軍中，先生率置其家屬於衙內，餽養之。其稚孤羸瘠濱死，命夫人梳洗，先以粥飲，潤其腸，經月後乃飯之，得以蘇成，遠近歎賞其高義。

丙申，瓜滿，體察使啓請仍任。

丁酉，拜司諫院正言，遞授侍講院文學。以親家在南，近警無意遠宦，從事巡營幕下二年矣。

庚子春，拜全羅都事，不赴。

(辛丑)除禮曹佐郎陞正郎，秋除全州判官，有治績，州人立碑頌之。

壬寅春，拜司憲府持平，旋遞為體察使從事官，為全羅道暗行御史。

癸卯，按覈慶尙道軍務。

甲辰夏，復除文學兼春秋館記注官知製教，參宣武扈聖勳一等。

乙巳夏，復入為持平，時有風水災，自上求言，先生陳筮，草有權奸當國之語，長官朴承宗怒其語逼時宰，格而不奏，遂呈辭歸鄉。

丙午秋，除統制使從事官，行裝諸具，無不破裂，人曰，統營工匠聚會處，何如是累弊耶？先生曰，吾嘗見統使內外求請軸，其中所載，不可勝計，吾何忍添名於其間乎？

丁未春，除江界判官，以親癯未赴。夏丁外艱，哀毀踰禮，廬墓三年，不出山門外。

己酉，服闋，時昏朝政亂，除工曹正郎不赴。

庚戌，除忠清都事。李蒼石堦贈詩曰，臺閣即今多後進，朝廷誰復記先生。秋除咸鏡道評事。辛亥，除全羅道都事，皆不赴。

癸丑秋，除昌原府使，為繼母養，黽勉赴任，權貴以奴婢相訟事請囑，先生嚴責之。時鄭仁弘以領相在陝川，遙執朝權，居官者無不趨走干謁而先生一不到其門，鄭雖知其不附己，而亦不以爲怒也。

有一品官以府使私用宮闕綿布四十疋，告于鄭，鄭曰吾嘗聞其爲政，必不爲此。先生聞之，查覈做言者不得，及遞歸，其人來謝路上而去。本府自兵燹後，學宮頽廢，先生捐俸重建，集諸生，勸獎學業。有獷寇屯聚島中，遠近被其害，遣卒捕其黨，自此賴以無事，上聞特陞通政資。

戊午春，遞還，居家六年。

癸亥，仁廟改玉初，擢拜承政院同副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以病陳疏辭不赴。常以不得終養先慈爲平生至痛，事繼母吳氏至孝，及病歿，先生亦以風痺漸至沈重，而口不絕母病何如。伯氏死於兵，每語必流涕，教養孤姪，分給其產，畫祭土。病中惟勸讀兄孫曰，忍使吾兄之後而至爲不學蒙昧乎？其本心之全德皆此類也。

甲子，正月初八日，考終于寢，享年六十三，葬義城縣西栗里村已坐原。

丙戌，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世子左副賓客，其在宣廟朝錄扈聖勳，故有此恩例也。

先生生文獻世家，天稟仁慈，器局弘毅，知能又早發，孝友之行出於天性，而早就有道，學問宏博，造詣高明，已爲當世師友之所推重，而及其早登科第，入則盡忠事君，出則殫誠恤民，所在而盡其衷，當亂則奮不顧身，處變則懷之以恩，是以異己者不敢索其疵，同己者無不盡其心，所以君子之道，知進退存亡而不失其正，能明哲保身於艱險之中，而惟其低回下僚不得展布所蘊，此則世道之責於先生，有何加損哉？

有一樞宰欲見先生，遣先生所親人誘之，先生不聽，因諷誡其人，其人不從，未幾果被禍，人服其先見之明。

於呼！今去先生之世三百十有九年矣。其遺芬剩馥至于今，尙能使人想像追慕之不已，而李敬亭，金忘窩，李訥隱諸先生所撰狀碣誌文足以證響於千古矣。猗歟，偉哉！

配贈貞夫人咸安趙氏，贈刑判址之女，生癸亥，卒庚寅，附葬于栗谷同原，男弘望，先生在宣城時，濟活飢民累千人，夢有神人來告曰，君積善，天將錫君奇兒，以望字名焉，庚子果生，卽孤松公也，文科正言，望重士林。女李舉進士，弘望男漢老，漢傑，漢伯，女柳重河，金時任進士，李朝衡，任世準，都爾高，權傑，朴文約縣監，朴望之，以下不盡錄。

其後孫宗基，正基來囑鴻洛以螭首之文，鴻洛以藐然後生，識膚言淺，不敢當是役，而旋念契誼之重，而有不可以終辭者，遂不揆僭妄，略敘始末，系以銘曰，

於嶽鵝洲，奕世斐英。

胚光毓慶，先生乃生。

孝友之行，聖賢之學。

就正有道，聞見益博。

出而事君，移孝爲忠。

所在而成，寔一其衷。

當亂奮義，保全一隅。

仁心惠澤，可廉頑夫。

薇垣之鶻，棘林之鸞。

中遭不辰，世道孔艱。

一生心思，清於冰蘖。

權貴之門，曾不及跡。

不忮不求，何用不臧。

報施必驗，亦已傳芳。

聖主卽阼，恩眷方篤。

天不愍遺，胡奪之速。
栗谷之原，有崇四尺。
刻銘于石，用詔千億。

後學通政大夫前行弘文館侍講知制誥原任秘書監郎 聞韶 金鴻洛 謹撰
題字篆書 竹儂 徐東均 謹書
後孫 炳浩 謹書

丙辰 五月 日

오봉 신 선생 신도비명(梧峯申先生神道碑銘) 병서(并序)

先生諱之悌，字順夫，梧峯號也。申氏系出鵝洲，高麗版圖判書諱允濡其始祖也。生諱祐全羅道按廉使，有孝行旌閭，曾祖諱翰，贈掌隸院判決事，祖諱應奎，贈工曹參判，考諱夢得贈左承旨，妣贈淑夫人月城朴氏敏樹女，嘉靖壬戌七月辛丑生先生。

선생의 휘(諱)는 지제(之悌)요 자(字)는 순부(順夫)이며 호(號)는 오봉(梧峯)이다. 신씨(申氏)의 세계(世系)는 아주(鵝洲)에서 나왔는데, 고려(高麗)의 판도판서(版圖判書) 휘 윤유(允濡)가 그 시조(始祖)이다. 윤유가 휘 우(祐)를 낳으니 전라도(全羅道) 안렴사(按廉使)를 지냈으며 효행이 있어 정려(旌閭)되었다. 증조의 휘는 한(翰)이니 장례원 판결사(掌隸院判決事)에 증직되었고, 조부의 휘는 응규(應奎)이니 공조참판(工曹參判)에 증직되었다. 선고(先考)의 휘는 몽득(夢得)이니 좌승지(左承旨)에 추증되었고, 선비(先妣)는 숙부인(淑夫人)에 증직된 월성 박씨(月城朴氏)이니 민수(敏樹)의 따님이다. 가정(嘉靖)¹⁾ 임술년(壬戌年, 1562) 7월 신축일(辛丑日)에 선생을 낳았다.

天性至孝，八歲丁母夫人憂，執喪終制，無異成人，小妹始生在襁褓中，啼聲甚哀，先生亦稚齡，常抱置其側，勤求乳媪，晝夜護養，不少懈，見者稱之。自幼刻意勤學，大人承旨公亦日夜勤勉，期於成立。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는데, 여덟 살에 모부인의 상을 당하자 집상(執喪)하여 예제(禮制)를 마칠 때까지 성인(成人)과 다름없이 하였다. 어린 누이가 막 태어나 강보에 싸여있었는데 울음 소리가 몹시 애달프니, 선생 또한 어린 나이였음에도 항상 자신의 옆에 안아다 두고 부지런히 젖어미를 구하여 밤낮으로 보호하며 양육하여 조금도 게으르지 않으니 보는 사람들이 칭찬하였다. 어려서부터 의지를 굳게 하여 부지런히 학문에 힘쓰니 아버지이신 승지공(承旨公) 또한 밤낮으로 부지런히 힘써 가르쳐서 장래의 대성을 기약하였다.

稍長聞安東惟一齋先生金公彥璣有學行，教誨生徒，負笈請業，時年未成童也。學徒遞炳書室，先生與同伴二人拾薪，一人誤推樵者，墜崖下斃，推者當法就捕入官，三人爭死，官義而并舍之，金公常奇之曰，此兒言貌謹重，篤學又如此，他日必成大器。

점차 성장하여, 안동(安東)의 유일재(惟一齋) 김언기(金彦璣)²⁾ 선생이 학행(學行)이 있어 생

1) 가정(嘉靖) : 명(明)나라 세종(世宗)의 연호이다. 가정 원년은 조선 중종(中宗) 17년(1522)에 해당한다.

도들을 가르친다는 소문을 듣고, 책상자를 꿰어지고 찾아가서 학업을 요청하니 당시 나이가 채 성동(成童 : 16세)이 되기 전이었다. 학도들이 번갈아가며 서실(書室)에 불을 때었는데, 선생과 동반(同伴) 두 사람이 땀감을 주우러 갔다가 한 사람이 잘못하여 나무꾼을 밀어 벼랑 아래로 떨어져 죽는 일이 발생하였다. 떠민 사람이 법에 따라 관아로 체포되어 가자 세 사람이 서로 자신이 죽겠다고 다투니 관장(官長)이 의롭게 여겨서 모두 석방하였다. 김공(金公)이 항상 기특하게 여기며 말하기를, “이 아이의 말과 용모가 근엄하고 신중하네 공부도 또한 이와 같이 독실하게 하니 훗날 반드시 큰 그릇이 되리라.”고 하였다.

十七歲，讀書山房，有村女美貌者來其居處，夜分不去，先生使女取楚以來，警責而撻之以送，其女遂感化以實告其夫，而其夫以酒饌來謝，其執心制行，已自如此。後又往拜請業于鶴峰金先生。 열일곱 살에 산방(山房)에서 독서하는데, 용모가 아름다운 마을의 여인이 선생의 거처로 찾아와서 밤이 늦도록 돌아가지 않으니 선생이 여인에게 회초리를 가져오도록 하여 타이르고 꾸짖으며 회초리를 쳐서 쫓아 보냈다. 그 여인이 드디어 감화하여 사실대로 그의 남편에게 실토하니 그 남편이 술과 음식을 가고 와서 사례하였다. 선생이 마음을 다잡고 행실을 통제하는 것이 이미 스스로 이와 같았다. 그 후에 또 학봉(鶴峰) 김 선생³⁾을 찾아가 뵈고 학문을 배웠다.

己丑擢文科，拜司贍寺直長，轉典籍監察，出爲禮安縣監。鶴峰先生惜其去，先生以其便養赴任。 기축년(1589)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사삼시 직장(司贍寺直長)⁴⁾에 임명되었다가 전적(典籍)⁵⁾, 감찰(監察)⁶⁾로 옮겼으며, 외직으로 나가 예안 현감(禮安縣監)이 되었다. 학봉 선생이 내직을 떠나는 것을 애석해 하자 선생은 부모님을 봉양하기에 편리하다고 하며 부임하였다.

壬辰，八路刳於兵，先生時以安東兼任，糾合兩邑兵，進駐龍城，以遏彼衆，彼衆逃散，聞者壯之。到縣初，有賊囚死法當，先生哀其群憫，教諭而赦之，自此縣遂無警。及遇亂，七十餘人冒死來救以免禍，蓋感化而報恩也。巡察使以先生獨能不失官守聞，命兼禮曹正郎，亦異數也。

임진년(1592)에 조선 팔도가 왜병에게 도륙이 되었는데, 선생이 이때 안동 부사(安東府使)를 겸임하였다. 예안과 안동 두 고을의 병사를 규합하여 용성(龍城)⁷⁾에 나아가 주둔하여 저 무리들을 막으니 저 무리들이 도망하여 흩어졌다. 이를 들은 사람들이 장쾌하게 여겼다. 현감으로 부임한 초기에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서 사형을 당해야 하는 죄수들이 있었는데, 선생이 그 무리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모습을 보고 가련히 여겨서 가르치고 타이른 후에 사면

2) 김언기(金彦璣) : 1520~1588. 본관은 광산(光山)으로 자는 중운(仲暉), 호는 유일재(惟一齋)이다. 아버지는 성균진사 주(壽)이고, 어머니는 순흥 안씨(順興安氏)이다. 이황(李滉)의 문인이다. 문하에서 남치리(南致利)·정사성(鄭士誠)·권위(權曄)·박의장(朴毅長)·신지제(申之悌)·권태일(權泰一) 등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어 당시 안동 학문 진흥의 창도자로 알려졌다.

3) 학봉(鶴峰) 김 선생 : 김성일(金誠一) : 1538~1593)이다. 본관은 의성(義城)이고 자는 사순(士純), 호는 학봉(鶴峯)이다. 안동의 임하(臨河) 출생이다. 이황의 학문을 정통으로 계승한 학자이며 임진왜란 때 초유사로서 경상도 지방의 의병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4) 사삼시 직장(司贍寺直長) : 사삼시(司贍寺)는 조선시대에 저화(楮貨) : 닥나무 원료의 종이로 만든 紙幣의 발행과 노비가 공납하는 면포를 관장하던 관청이다. 직장(直長)은 종7품의 벼슬이다.

5) 전적(典籍) : 조선시대 성균관(成均館)에 둔 정육품(正六品) 관직으로 정원은 13명이었다. 도적(圖籍)의 수장(收藏)과 출납·관리의 일을 맡았다.

6) 감찰(監察) : 조선시대 사헌부(司憲府)에 두었던 종6품의 관직이다. 관리들의 비위 규찰, 재정 부문의 회계 감사, 의례 행사 때의 의견 감독 등 감찰 실무를 담당하였다.

7) 용성(龍城) :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龍宮)이다.

하니 이로부터 현내에 더 이상 경계할 일이 없어졌다. 왜란이 일어나자 70여 명이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와서 구원하여 화를 면하니, 대개 교화에 감동하여 은혜를 갚은 것이다. 순찰사가 선생이 홀로 관수(官守)를 잃지 않았다고 보고하니, 임금이 예조정랑(禮曹正郎)을 겸임하도록 명하였다. 이것 또한 특별한 예우였다.

癸巳五月, 鶴峰先生訃至, 爲位而哭之. 十二月, 自晉州返葬于安東佳樹川, 躬往會葬, 爲文致奠, 其文略曰, 不肖無狀, 往來於門下者, 亦既有年云云. 時歲饑設賑, 境外之民聞先生厚德, 坌集無數, 先生曰, 此亦國民. 遂無區別而濟活甚衆. 先生常以年少未及溪門爲深恨, 自莅本縣, 日往陶山, 與及門諸長老講論旨訣, 商確政務, 常與近始齋先生金公有同年契分, 而約死王事, 至是金公爲義兵將, 卒于軍中, 先生率置其家屬於衙內, 餽養之. 其稚孤羸瘠濱死, 命夫人梳洗, 先以粥飲, 潤其腸, 經月後乃飯之, 得以蘇成, 遠近歎賞其高義.

계사년(1593) 5월에 학봉(鶴峰) 선생의 부고가 이르니, 위패를 만들어 곡을 하였다. 12월에 진주(晉州)에서 안동 가수천(佳樹川)으로 반장(返葬)하니 선생이 몸소 장례식에 참석하여 제문을 지어 제사를 드렸다. 그 글에 대략, “보잘것없는 불초 제가 선생님의 문하에 드나든 지가 이미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라는 등의 말이 있었다. 이 해에 흉년이 들어 구휼소(救恤所)를 설치하니 다른 고을의 백성들이 선생의 후덕함을 듣고 무수히 모여 드니 선생이 말하기를, “이들 또한 나라의 백성이다.”고 하였다. 마침내 이들을 차별하지 않으니 구제받아 살아난 자가 매우 많았다. 선생은 항상 나이가 어려서 퇴계(退溪) 선생의 문하에서 직접 배우지 못한 것을 몹시 한스러워하였는데, 본현에 부임하고부터는 날마다 도산(陶山)에 가서 퇴계 선생에게 직접 배운 여러 장로(長老)들과 지결(旨訣)을 강론하고 정무(政務)를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일찍이 근시재(近始齋) 김 선생⁸⁾과는 동년(同年)⁹⁾의 교분에 있었는데 국사(國事)에 몸을 바치기로 약속을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김공이 의병장(義兵將)이 되었다가 군중(軍中)에서 죽으니, 선생이 그의 가족들을 관아로 데리고 와서 보살펴 주었다. 그의 어린 고아가 파리하게 야위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부인을 시켜서 세수시키고 빗질한 후에 먼저 죽을 마셔서 그 속을 부드럽게 하고 한 달이 지난 후에야 밥을 먹게 하여 살아나게 되었다. 원근의 사람들이 선생의 높은 의리에 감탄하고 칭찬하였다.

丙申, 瓜¹⁰⁾滿, 體察使啓請仍任.

병신년에 임기가 다되었으나 체찰사(體察使)가 계청(啓請)하여 유임되었다.

丁酉, 拜司諫院正言, 遞授侍講院文學. 以親家在南, 近警無意遠宦, 從事巡營幕下二年矣.

정유년(1597)에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에 임명되었다가 시강원 문학(侍講院文學)으로 바뀌어 체수되었다. 친가가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경비하고 멀리까지 가서 벼슬할 뜻이 없었기 때문에 순찰사의 군영 막하에서 종사관으로 2년을 지냈다.

庚子春, 拜全羅都事, 不赴.

경자년(1600) 봄에 전라 도사(全羅都事)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8) 근시재(近始齋) 김 선생 : 김해(金垓) : 1555~1593이다. 본관은 광산(光山)이고 자는 달원(達遠), 호는 근시재(近始齋) 또는 시재(始齋)이다. 효로(孝盧)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관찰사 연(緣)이고, 아버지는 부의(富儀)이다. 예학에 조예가 깊었고 임진왜란 때 영남의병대장으로 추대되어 큰 공을 세웠다.

9) 동년(同年) : 같은 해에 함께 과거에 급제하는 것을 말한다.

10) 瓜 : 원문에는 ‘菹’로 되어 있으나 ‘瓜’가 되어야 한다. ‘瓜滿’은 관리의 임기가 차는 것을 말한다.

(辛丑)¹¹⁾除禮曹佐郎陞正郎, 秋除全州判官, 有治績, 州人立碑頌之.

신축년(1601)에 예조좌랑(禮曹佐郎)에 제수되었다가 정랑(正郎)으로 승진하였다. 가을에 전주 판관(全州判官)에 제수되어 치적(治績)이 있어서 전주 사람들이 비석을 세워서 칭송하였다.

壬寅春, 拜司憲府持平, 旋遞爲體察使從事官, 爲全羅道暗行御史.

임인년(1602) 봄에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에 임명되었다가 얼마 후에 체찰사의 종사관(從事官)으로 체직되었고, 전라도 암행어사(暗行御史)가 되었다.

癸卯, 按覈慶尙道軍務.

계묘년(1603)에 경상도의 군무(軍務)를 안핵(按覈)하였다.

甲辰夏, 復除文學兼春秋館記注官知製教, 參宣武扈聖勳一等.

갑진년(1604) 여름에 다시 문학(文學) 겸 춘추관 기주관(春秋館記注官) 지제교(知製教)에 제수되었고, 선무 호성 일등공신(宣武扈聖一等功臣)에 녹훈(錄勳)되었다.

乙巳夏, 復入爲持平, 時有風水災, 自上求言, 先生陳筭, 草有權奸當國之語, 長官朴承宗怒其語逼時宰, 格而不奏, 遂呈辭歸鄉.

을사년(1605) 여름에 다시 내직으로 들어가 지평(持平)¹²⁾이 되었다. 이 때 태풍과 홍수의 재앙이 생기자 임금(求言)¹³⁾을 하니, 선생이 차자(筭子)¹⁴⁾를 올렸는데 초문(草文)에 권간(權奸)이 국정(國政)을 장악하였다는 말이 있었다. 대사헌(大司憲) 박승중(朴承宗)¹⁵⁾이 성을 내며 그 말이 당시 재상을 폄박한 것이라 하여 물리쳐서 아뢰지 않으니, 마침내 사직서를 올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丙午秋, 除統制使從事官, 行裝諸具, 無不破裂, 人曰, 統營工匠聚會處, 何如是累弊耶? 先生曰, 吾嘗見統使內外求請軸, 其中所載, 不可勝計, 吾何忍添名於其間乎?

병오년(1606) 가을에 통제사(統制使)¹⁶⁾의 종사관(從事官)에 제수되었는데, 행장(行裝)이며 여러 도구들이 찢어지고 헤어지지 않은 것이 없으니 어떤 사람이 묻기를, “통영(統營)은 뛰어난 장인(匠人)들이 모인 곳인데 어찌 이처럼 남루하고 피폐할 수가 있는가?” 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통제사에게 안팎에서 물품을 요구하는 편지축을 보았는데 그 안에

11) 辛丑 : 원문에는 간지가 빠졌으나 연보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梧峰先生別集年譜>

12) 持平(持平) : 조선시대 사헌부(司憲府)에 두었던 정5품 관직으로 정원은 2인이었다.

13) 求言(求言) : 나라에 재앙이 있을 때나 국정에 필요할 경우에 임금이 정치의 잘못에 대하여 널리 신하들로 부터 비판의 말을 구하던 일이다. 이 때 전달된 내용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관례였다.

14) 差子(筭子) : 조선시대에 관료가 국왕에게 올리는 간단한 서식의 상소문이다.

15) 朴承宗(朴承宗) : 1562~1623. 본관은 밀양(密陽)으로 자는 효백(孝伯), 호는 퇴憂堂(退憂堂)이다. 1585년(선조 18)에 진사가 되고, 다음해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영의정에 올라 밀양부원군(密陽府院君)에 봉하여졌다. 1623년 인조반정 때 아들 자흥(子興)의 딸이 광해군의 세자빈(世子嬪)으로서 그 일족이 오랫동안 요직에 앉아 권세를 누린 사실을 자책하여 아들과 같이 한낫에 목매어 자결하였다.

16) 統制使(統制使) : 조선시대 임진왜란(壬辰倭亂) 중에 설치된 종이품(從二品) 서반 외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의 수군(水軍)을 거느리는 총지휘관(總指揮官)으로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라고 하였다. 1593년에 이순신(李舜臣)이 초대 통제사로 임명된 이래 고종 32년에 폐지될 때까지 모두 208명의 통제사가 임명되었다.

쌓인 것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내 어찌 차마 그 사이에 끼어 이름을 더럽힐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丁未春, 除江界判官, 以親癘未赴. 夏丁外艱, 哀毀踰禮, 廬墓三年, 不出山門外.

정미년(1607) 봄에 강계 판관(江界判官)에 제수되었으나 부친이 편찮아서 부임하지 않았다. 여름에 부친상을 당하니 슬피하여 몸을 상하게 한 것이 예법에 벗어날 지경이었다. 3년간 여묘(廬墓)살이를 하면서 산문(山門) 밖을 나가지 않았다.

己酉, 服闋, 時昏朝政亂, 除工曹正郎不赴.

기유년(1609)에 상복을 벗었다. 이 때 혼조(昏朝 : 광해군)의 정치가 어지러웠는데, 공조정랑(工曹正郎)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庚戌, 除忠淸都事. 李蒼石峻贈詩曰, 臺閣卽今多後進, 朝廷誰復記先生. 秋除咸鏡道評事. 辛亥, 除全羅道都事, 皆不赴.

경술년(1610)에 충청 도사(忠淸都事)에 제수되었다. 창석(蒼石) 이준(李峻)¹⁷이 시를 지어 주었는데, “대각(臺閣)에 이제는 후진들이 많아져서, 조정에서 그 누가 선생을 기억하리?[臺閣卽今多後進, 朝廷誰復記先生.]”라고 하였다. 가을에 함경도 평사(咸鏡道評事)에 제수되었고, 신해년(1611)에는 전라도 도사(全羅道都事)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

癸丑秋, 除昌原府使, 爲繼母養, 電勉赴任, 權貴以奴婢相訟事請囑, 先生嚴責之. 時鄭仁弘以領相在陝川, 遙執朝權, 居官者無不趨走干謁而先生一不到其門, 鄭雖知其不附己, 而亦不以爲怒也. 有一品官以府使私用宮闕綿布四十疋, 告于鄭, 鄭曰吾嘗聞其爲政, 必不爲此. 先生聞之, 查覈, 做言者不得, 及遞歸, 其人來謝路上而去. 本府自兵燹後, 學宮頽廢, 先生捐俸重建, 集諸生, 勸獎學業. 有獷寇屯聚島中, 遠近被其害, 遣卒捕其黨, 自此賴以無事, 上聞特陞通政資.

계축년(1613) 가을에 창원 부사(昌原府使)에 제수되니 계모(繼母)를 봉양하기 위하여 서둘러 부임하였다. 어떤 권세 있고 귀한 자가 노비(奴婢) 문제로 서로 소송하여 청탁을 해 오니 선생이 이를 엄중히 꾸짖었다. 이때 정인홍(鄭仁弘)이 영상(領相)으로서 합천(陝川)에 있었는데, 먼 지방에서 조정의 권력을 장악하니 벼슬아치들이 앞다투어 달려가 뵈고자 하지 않는 자들이 없었다. 그러나 선생은 일절 그 문(門) 앞에 가지 않으니, 정인홍이 비록 선생이 자신에게 불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노하지 않았다. 어떤 일품(一品) 재상이 창원부사가 궁궐에 보낼 면포 40필을 사사로이 이용하였다고 정인홍에게 고변한 자가 있었는데, 정인홍이 말하기를, “나는 일찍이 그가 어떻게 정사(政事)를 보는지를 듣고 있었다. 그가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고 하였다. 선생이 이 말을 듣고 사실을 조사하게 하였으나 말을 만들어 낸 자를 찾지는 않았다. 선생이 체직되어 돌아가는데 그 사람이 찾아와 길에서 사과하고 돌아갔다. 창원부가 전쟁으로 불타버린 후에 학궁(學宮 : 향교)이 무너져 황폐했는데, 선생이 봉급을 털어 다시 짓고 여러 유생들을 모아 학업에 힘쓰도록 장려하였다. 사나운 도적들이 섬 가운데에 모여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원근에서 그 피해를 입었다. 선생이 군졸을 보내어 그 무리들을 체포하여 오니 이로부터 아무 일이 없게 되었다. 임금이 이를 듣고 특

17) 이준(李峻) : 1560~1635. 본관은 흥양(興陽)이며 자는 숙평(叔平), 호는 창석(蒼石)이다. 이조년(李兆年)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탁(琢)이고, 아버지는 수인(守仁)이며, 어머니는 신씨(申氏)이다. 정경세와 더불어 유성룡의 학통을 이어받아 학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별히 승진시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가자(加資)하였다.

戊午春, 遞還, 居家六年.

무오년(1618) 봄에 체직되어 돌아와서 6년 동안 집안에서 기거하였다.

癸亥, 仁廟改玉初, 擢拜承政院同副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 以病陳疏辭不赴. 常以不得終養先慈爲平生至痛, 事繼母吳氏至孝, 及病徂, 先生亦以風痺漸至沈重, 而口不絕母病何如. 伯氏死於兵, 每語必流涕, 教養孤姪, 分給其產, 畫祭土. 病中惟勸讀兄孫曰, 忍使吾兄之後而至爲不學蒙昧乎? 其本心之全德皆此類也.

계해년(1623)에 인묘(仁廟)가 반정에 성공하여 등극한 처음에, 선생을 발탁하여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 겸 경연 참찬관(經筵參贊官)¹⁸ 춘추관 수찬관(春秋館修撰官)¹⁹에 임명하니 병으로 사양하는 상소를 올리고 부임하지 않았다. 항상 돌아가신 모친에게 끝까지 봉양하지 못한 것을 평생의 지극한 통한으로 여겨 계모 오씨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다. 계모의 병이 깊어지자 선생 또한 풍비(風痺)가 점점 심해져 위중한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어머니의 병세가 어떠한가만을 끊임없이 물었다. 만형이 전쟁 중에 죽으니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고아가 된 조카를 가르치고 양육하였으며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제토(祭土)를 획정하여 주었다. 병중에도 오직 형의 손자들에게 독서할 것을 권하면서 말하기를, “어찌 차마 내 형의 자손들로 하여금 무지몽매한 지경에 이르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 본심의 전일한 덕성이 모두 이와 같았다.

甲子, 正月初八日, 考終于寢, 享年六十三, 葬義城縣西栗里村巳坐原.

갑자년(1624) 정월 초8일에 정침(正寢)에서 운명하시니 향년(享年) 63세였다. 의성현(義城縣) 서쪽 울리촌(栗里村) 사좌(巳坐) 언덕에 장례지냈다.

丙戌, 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世子左副賓客, 其在宣廟朝錄扈聖勳, 故有此恩例也.

병술년(1646)에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참판(吏曹參判) 겸 동지경연·의금부·춘추관·성균관사(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 세자 좌부빈객(世子左副賓客)에 증직되었다. 선묘(宣廟)조에 호성공신(扈聖功臣)에 녹훈(錄勳)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전이 베풀어진 것이다.

先生生文獻世家, 天稟仁慈, 器局弘毅, 知能又早發, 孝友之行出於天性, 而早就有道, 學問宏博, 造詣高明, 已爲當世師友之所推重, 而及其早登科第, 入則盡忠事君, 出則殫誠恤民, 所在而盡其衷, 當亂則奮不顧身, 處變則懷之以恩, 是以異己者不敢索其疵, 同己者無不盡其心, 所以君子之

18) 경연 참찬관(經筵參贊官) : 경연(經筵)은 조선시대에 임금에게 유학(儒學)의 경서를 강론하던 일인데 유교의 이상 정치를 실현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경연관(經筵官)은 당상관(堂上官)과 낭청(郎廳)으로 구성되었다. 당상관은 영사(領事) 3인, 지사(知事) 3인, 동지사(同知事) 3인, 참찬관(參贊官) 7인이다. 영사는 삼정승이 겸하고 지사와 동지사는 정2품과 종2품에서 각각 적임자를 골라 임명하였다. 참찬관은 여섯 승지와 홍문관 부제학이 겸직하였다.

19) 춘추관 수찬관(春秋館修撰官) : 춘추관은 조선시대에 시정(時政)의 기록을 관장하던 관서이다. 관원으로는 영사(領事 : 영의정이 겸임) 1인, 감사(監事 : 좌·우의정이 겸임) 2인, 지사(정2품) 2인, 동지사(종2품) 2인, 수찬관(정3품 堂上官), 편수관(정3품 堂下官~종4품), 기주관(정5품·종5품), 기사관(정6품~정9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모두 문관으로 임용하되, 다른 관부의 관원이 겸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들 모두를 통칭하여 사관(史官)이라고 하였다.

道，知進退存亡而不失其正，能明哲保身於艱險之中，而惟其低回下僚不得展布所蘊，此則世道之責於先生，有何加損哉？

선생은 대대로 법도 있는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 천품이 인자하고 기량이 넓고 굳세었다. 지혜와 능력 또한 일찍 드러내었고, 효도하고 우애 있는 행실은 천성적으로 타고난 것이었다. 일찍이 도(道)가 있는 스승에게 나아가 배워서 학문이 평박(宏博)하고 조예(造詣)가 고명(高明)하여 이미 당세에 사우(師友)들이 추중(推重)하는 바가 되었다.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에 들어오면 충성을 다하여 임금을 섬겼고 외직으로 나가면 성심을 다하여 백성들을 구휼하였다. 가는 곳마다 충정(衷情)을 다하였으니, 난리를 만나서는 발분(發奮)하여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고 변고를 만나서는 은혜를 생각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자신과 뜻이 다른 자들도 감히 그 허물을 찾지 못하였고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은 그 마음을 다하였다. 군자의 도는 진퇴와 존망을 알아야만 그 정도를 잃지 않아서 능히 험난한 중에도 현명하고도 밝게 자신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어서, 노련한 하급 관리들도 자신들이 평소에 쌓은 실력을 다 드러내지 못하였다. 이것은 세도(世道)가 선생에게 요구한 것이니, 무엇을 더 하고 뺄 것이 있겠는가?

有一樞宰欲見先生，遣先生所親人誘之，先生不聽，因諷誡其人，其人不從，未幾果被禍，人服其先見之明。

어떤 재상이 선생을 만나보고 싶어서 선생과 친한 사람을 보내어 유혹하였다. 선생이 듣지 않고 그 사람을 풍자하여 경계하였더니 그 사람이 수긍하지 않았다. 얼마 후에 과연 그가 화를 당하니, 사람들이 선생의 선견지명(先見之明)에 탄복하였다.

於呼！今去先生之世三百十有九年矣。其遺芬剩馥至于今，尚能使人想像追慕之不已，而李敬亭，金忘窩，李訥隱諸先生所撰狀碣誌文足以證響於千古矣。猗歟，偉哉！

아아! 지금 선생의 시대로부터 319년이 흘렀다. 그러나 선생이 남긴 아름다움과 넘치는 향기는 오늘에까지 이르러서도 오히려 우리들로 하여금 선생을 그려보며 추모하는 마음을 그치지 않게 한다. 이경정(李敬亭)²⁰, 김망와(金忘窩)²¹, 이눌은(李訥隱)²² 등 여러 선생들이 지은 소장(疏狀) 묘갈(墓碣) 묘지문(墓誌文)들이 천 년 후까지도 증명하며 소리를 울릴 것이니, 아아, 위대하도다!

配贈貞夫人咸安趙氏，贈刑判址之女，生癸亥，卒庚寅，附葬于栗谷同原，男弘望，先生在宣城時，濟活飢民累千人，夢有神人來告曰，君積善，天將錫君奇兒，以望字名焉，庚子果生，卽孤松公也，文科正言，望重士林。女李學進士，弘望男漢老，漢傑，漢伯，女柳重河，金時任進士，李朝衡，任世準，都爾高，權然，朴文約縣監，朴望之，以下不盡錄。

부인은 정부인(貞夫人)에 증직된 함안 조씨(咸安趙氏)이니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증직된 조지(趙址)의 따님이다. 계해년(1563)에 나서 경인년(1650)에 별세하였다. 울곡(栗谷)의 같은

20) 이경정(李敬亭) : 이민성(李民成) : 1570~1629)이다. 경상북도 의성 출신으로 본관은 영천(永川)이며, 자는 관보(寬甫), 호는 경정(敬亭)이다. 아버지는 관찰사 광준(光俊)이며, 어머니는 평산 신씨(平山申氏)이다.

21) 김망와(金忘窩) : 김영조(金榮祖) : 1577~1648)이다. 본관은 풍산(豊山)으로 자는 효중(孝仲), 호는 망와(忘窩)이다. 아버지는 산음현감 대현(大賢)이며, 어머니는 전주 이씨(全州李氏)이다. 김성일(金誠一)의 사위이다.

22) 이눌은(李訥隱) : 이광정(李光庭) : 1674~1756)이다. 본관은 원주(原州)로 자는 천상(天祥), 호는 눌은(訥隱)이다. 아버지는 정인 주(澗)이며, 어머니는 진주 유씨(晉州柳氏)이다. 갈암 이현일과 밀암 이재를 스승으로 한 남인의 대표적인 문장가이다.

언덕에 부장(附葬)하였다. 아들은 홍망(弘望)이다. 선생이 선성(宣城 : 예안)에 있을 때에 굶주린 백성 수천 명을 구제하여 살렸는데 꿈에 한 신인(神人)이 나타나 말하기를, “그대가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 하늘이 장차 그대에게 기이한 아이를 내려주려고 한다. ‘망(望)자’를 넣어서 이름을 지으라.”고 하였다. 경자년(1600)에 과연 아들을 낳았으니 바로 고송공(孤松公)이다. 문과에 급제하였고 정언(正言)을 지냈으며 사림에 인망이 두터웠다. 딸은 진사 이거(李舉)에게 시집갔다. 홍망의 아들은 한로(漢老), 한걸(漢傑), 한백(漢伯)이며, 딸들은 유중하(柳重河), 진사 김시임(金時任), 이조형(李朝衡), 임세준(任世準), 도이설(都爾高), 권휴(權休), 현감 박문약(朴文約), 박망지(朴望之)에게 시집갔다. 그 이하는 다 기록하지 못한다.

其後孫宗基，正基來囑鴻洛以螭首之文，鴻洛以藐然後生，識庸言淺，不敢當是役，而旋念契誼之重，而有不可以終辭者，遂不揆僭妄，略敘始末，系以銘曰，
 그 후손 종기(宗基), 정기(正基)²³⁾가 나를 찾아와서 비석에 새길 글을 부탁하였다. 나는 아득한 후생으로서 아는 것이 없고 말도 짧아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돌이켜 계의(契誼)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끝내 사양할 수 없어서 드디어 참망(僭妄)함을 헤아리지 않고 대략 시말을 서술하고 명문(銘文)을 이어 붙인다. 명문은 다음과 같다.

於鵝洲	아! 혁혁한 아주 신씨는
奕世斐英	누대에 걸쳐서 빛나고 아름다웠네.
胚光毓慶	광채를 배태하고 경사를 길러서
先生乃生	선생이 이에 나셨도다.
孝友之行	효도하고 우애 있는 행실에
聖賢之學	성현의 학문을 닦았도다.
就正有道	도 있는 스승에게 나아가 배우니
聞見益博	견문이 더욱 넓어졌네.
出而事君	벼슬길에 나가서 임금을 섬기니
移孝爲忠	효성을 옮겨서 충성을 삼았네.
所在而成	이르는 곳마다 임무를 완성하니
寔一其衷	이것은 충정을 한결같이 한 것이라네.
當亂奮義	난리를 만나서는 의리(義理)를 떨쳐서
保全一隅	한 지방을 지켜서 보전하였네.
仁心惠澤	어진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니
可廉頑夫	어리석은 자들도 바르게 되었네.
薇垣之鶚	미원(薇垣) ²⁴⁾ 의 악조(鶚鳥)였고
棘林之鸞	극림(棘林) ²⁵⁾ 의 난새[鸞鳥]였으나

23) 종기(宗基), 정기(正基) : 《오봉선생문집(梧峰先生文集)》과 <신도비(神道碑)>에는 모두 ‘定基, 宗基’로 되어 있으나 김홍락(金鴻洛)의 《모계문집(某溪文集)》과 《아주신씨족보(鵝洲申氏族譜)》에 의거하여 ‘宗基, 正基’로 바로잡았다.

24) 미원(薇垣) : 사간원(司諫院)의 별칭이다. 중국에서는 중서성(中書省)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중서성에는 자미(紫薇)를 심었고 사간원은 중서성 소속이었기 때문에 조선조에서는 사간원의 별칭으로 사용하였다. 악조(鶚鳥)는 물수리인데 강직하거나 훌륭한 인물을 비유한 말이다. 후한(後漢)의 공융(孔融)이 예형(邳衡)을 추천한 표문(表文)에 ‘지조(鷲鳥) 백 마리가 한 마리 악조(鶚鳥)만 못하다’고 한 것에서 유래했다. 오봉 선생은 정유년(1597)에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에 제수되었다.

25) 극림(棘林) : 가시나무 숲으로, 《예기(禮記)》에 보면 대사구(大司寇 : 법무장관)가 극목(棘木) 밑에서 옥사

中遭不辰	중년에 불운한 시대를 만났으니
世道孔艱	세도는 몹시도 험난했네.
一生心思	한 평생의 마음가짐이
清於冰蘂	얼음보다 더 맑았고
權貴之門	권세 있고 귀한 집에는
曾不及跡	찾아가지 않았다네.
不伎不求	헤치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면
何用不臧	어찌 착하지 않겠는가? ²⁶⁾
報施必驗	선행에는 반드시 보답이 있는 법
亦已傳芳	꽃다운 그 명성 후세에 전해지네.
聖主卽昨	성스러운 임금님 즉위하시매
恩眷方篤	주상의 은총이 바야흐로 독실했네.
天不憖遺	하늘이 끝내 남겨두지 않아서
胡奪之速	어찌 이토록 빨리 세상 떠나셨나?
栗谷之原	율곡의 언덕에
有崇四尺	넉 자 비석 우뚝하니
刻銘于石	비석에다 명문(銘文) 새겨
用詔千億	억천 년 깨우치리.

후학(後學) 통정대부(通政大夫) 전 행 홍문관 시강(前行弘文館侍講) 지제고(知制誥) 원임(原任) 비서감랑(秘書監郎) 문소(聞韶) 김홍락(金鴻洛)²⁷⁾이 삼가 찬술(撰述)하고, 제자(題字)인 진서(篆書)는 죽농(竹農) 서동균(徐東均)²⁸⁾이 삼가 쓰고, 후손(後孫) 병호(炳浩)²⁹⁾가 삼가 글씨를 쓰다.

병진년 오월 일.

(獄事)를 청단(聽斷)하였다고 한다. 여기서는 사헌부(司憲府)를 지칭한 듯하다. 난조(鸞鳥)는 봉황의 일종으로 역시 훌륭한 인물을 가리킨다. 오봉 선생은 임인년(1602) 봄에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에 임명되었다.

26) 不伎不求 何用不臧 : 《시경(詩經) 패풍(邶風) 웅치(雄雉)》에 나오는 말이다.

27) 김홍락(金鴻洛) : 1863~1943. 조선 말기 문신으로 자는 우경(羽卿), 호는 모계(某溪), 본관은 의성(義城)이다. 부친은 김진억(金鎭嶷)이다. 서산(西山) 김홍락(金興洛)과 척암(拓庵) 김도화(金道和)의 문하에서 학문에 정진하였고 고종 때 진사에 급제하였으며 순종 때까지 여러 벼슬을 지냈다. 통정대부에 올랐으며 유고에 《모계문집(某溪文集)》이 있다.

28) 서동균(徐東均) : 1902~1978. 대구 달성 출신의 근대 서화가이다. 석재(石齋) 서병오(徐炳五)에게 배워서 사군자(四君子)에 능했으며 글씨는 황산곡체(黃山谷體)를 잘 썼다.

29) 병호(炳浩) : 1934~2013. 아주 후인으로 28세손이며 오봉종손 申元植의 차남. 경북 의성 출신의 교육자이며 서예가이다. 1954년 의성국민학교에서 교단에 오른 이래 45년간 중고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전국교육자연구발표대회 9회 입상. 사도실천기 전국현상공모 당선, 문교부장관표창, 제1회 성균관표창, 오늘의 스승상 외 다수. 의성 조문국 사적지 경덕왕릉비 외 백여 기의 비문 글씨를 썼다.